

삼성, LED TV 날개 달았다!

출시 10주만에 35만대 판매 ... 북미지역 14만대로 최대

삼성전자의 LED TV가 세계 시장에서 하루 평균 5000대씩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2009년 3월 국내와 유럽을 시작으로 세계시장에 출시한 LED(Light Emitting Diode) TV 판매 대수가 출시 10주째인 5월25일 35만대(유통망 공급기준)를 넘어섰다고 5월31일 발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출시 6주 만에 20만대가 판매된 데 이어 8주 만에 25만대를 넘어섰고 2주 만에 다시 10만대가 판매됐다”며 “240Hz 제품인 8000시리즈가 출시되면서 판매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40인치 이상 대형 TV가 많이 팔리는 북미 지역 판매량이 14만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에서 13만대, 중동·아프리카와 동남아에서 각 1만대 이상 판매했으며 국내에서는 1만5000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제품별로는 6000시리즈가 19만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가격이 더 비싼 7000시리즈는 14만5000여 대가 판매됐다.

5월20일 이후에는 국내 및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8000시리즈를 출시해 약 1만5000여대를 판매했다.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김양규 전무는 “출시 2달여 만에 35만대 이상 판매함으로써 국내 TV시장에서 처음으로 신규시장은 주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01>